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 축 사

'23. 8. 17.(목) 14:00 / 포시즌스 호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 소 영

## **I . 인사말**

---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소영입니다.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 곳에서부터 기꺼이 고견을 나누고자

바쁘신 와중에도 행사에 참석해주신

Richard Barker(리차드 바커), Jingdong Hua(징동 화),

Paul Munter(폴 문터), Yasunobu Kawanishi(야스노부 가와니시),

Keith Kendall(키스 켄달),

그리고 이석준 이사님, 백태영 위원님, 유고운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귀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회계기준원 이한상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 **II . 글로벌 ESG 공시 논의 동향**

---

최근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자본시장 관련 정책과 제도에

변화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시 제도는  
기업의 ESG 활동(activities)을 측정(measure)하여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투명하고 적절한 정보 공개를 통해  
기업의 행동변화를 유인하는 한편으로,

공시 - 평가 - 투자로 이어지는  
ESG 생태계의 첫 단계라는 점에서도  
다른 제도들의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  
기업의 ESG 공시 의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ESG 논의에서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EU의 경우,  
일찍이 2018년부터 ESG 공시제도를 의무화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확정하고,  
보다 강화된 ESG 공시 의무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U의 강화된 ESG 공시제도는  
EU 기업들뿐만 아니라,  
EU 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 기업이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EU는  
환경보호,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의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규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기업의 자율적인 ESG 공시 규제체제를 유지했던  
미국의 경우에도 최근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미국 SE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기후 공시 의무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종안 확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거래위원회

한편으로는 IFRS 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화 논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지지하에  
글로벌 ESG 공시 표준(baseline) 제정을 위해  
ISSB가 설립되었으며,

금년 6월에는 기후 분야 등  
2개의 ESG 공시 기준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 Ⅲ. 한국 경제의 특성과 국내 ESG 공시기준

---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이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기후변화, 코로나 팬데믹과 같이  
우리가 그동안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들이  
한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그리고 이를 넘어  
글로벌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사회의 가치 '공유'와 정책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많은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자칫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나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저는 2가지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한국경제는  
상품의 수출·수입과 같은 대외의존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국의 **대외의존도**(수출+수입액/국민총소득(GNI)) : **69.6%**(‘21년 기준, 통계청)

\* 상장사 **외국인 투자 비중** : **26.9%**(‘23.6월, 금융감독원)

즉,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 규제 강화와 같은  
새로운 논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경제권과 비교할 때,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 제조업 비중(세계은행) : (美<sup>21</sup>) 10.7% (英<sup>22</sup>) 8.4% (獨<sup>22</sup>) 20.5% (韓<sup>22</sup>) **25.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있는 발전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제위기 과정에서 **회복력(resiliency)\***을 높이는 것과 같은  
큰 장점이 있지만,

탄소감축과 같은 저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보다 큰 어려움을 겪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극복과정에서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경제가  
여타 경제권에 비해 보다 효과적으로 경제회복을 할 수 있었다는 평가

정부는 국내 ESG 공시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국제사회의 논의는 물론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과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이중공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정합성을 갖춘 공시 제도를 마련하되,  
정보제공자인 기업의 현실적인 부담과  
정보이용자인 투자자의 정보 니즈(needs)를  
균형 있게 고려할 예정입니다.

#### **IV. 맺음말**

---

다시 한번 더,  
오늘 국제 세미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통찰력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